

‘자랑스런 조대부고인상’ 은사상엔 조구현 교사 선정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정병용)는 17일 ‘자랑스러운 은사상’에 조구현 교사를 선정했다.

노남섭 유비온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받았다. 총동창회는 이날 조대부고 운동장에서 동문 친선체육 대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정병용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체육대회가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고 조대부고의 위상과 부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의 광주 건축상 ‘영상복합문화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사진)이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했다.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주)건축사사무소 도시인 대표 한대진 건축사가 설계했으며, 시공은 (주)대광건영이 맡았다.

이 작품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투영시켜 담아내고, 투명한 외피구조를 구성해 내외부 경계를 없애 활동성을 극대화한 점, 순환동선과 내부공간 계획이 역동적으로 구성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에는 (주)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의 남구 임암동 ‘김치종합센터’와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남수 건축사의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차지했다.

시상식은 11월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리는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있게 되며, 우수 작품은 도시건축문화제 행사기간인 11월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재영씨 보성소리축제 ‘명창’



이재영(48·별교국악원 운영)씨가 17일 ‘제1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씨는 이번에 수궁가의 ‘토끼 화상’내보를 불러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인사

◆전남대학교

▲전남대 대학원장 이용남(교육학과 교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허 견·이순기씨 장남 진우군 이 후형(이후형피부과의원 원장)·부희 영씨 장녀 재경양=23일(토) 오전 11시 서울 웨딩의 전당(그랜드홀)

▲이점옥·김계자씨 큰아들 대원군 김재환(법무사)·장정순씨 막내딸 연주양=23일(토) 오후 1시5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아이아트홀)

▲한동우·이경숙씨 장남 종환(광주지법)군 조성의·심규남씨 장녀 아라(전남대병원)양=24일(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윤오중·이성숙씨 차남 원진군 고창택(나주 한영사 대표)·장정숙씨 막내 은양=24일(일) 낮 1시 20분 광주시 치평동 하우스웨딩 스퀘어 14층(베일리기든홀)

▲김영진(광주도시공사 사장)·강

“다문화가족 평범한 이웃으로 봐주세요”

국무총리 표창 받은 영암 다문화가족센터장 송영희 씨

“결혼이민 여성은 특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4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송영희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조언이다.

송 센터장은 또 “전남의 경우 신안군 등 6~7개 시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없어서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 빨리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지난 2005년 4월 이주여성센터에서 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이듬해 4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장을 맡아 4년간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다. 그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가족 단위의 사업을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통상 다문화 지원이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송 센터장은 배우

자인 한국인 남편과 그 자녀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

가령 마을 회관에서 외국인 부인을 둔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거나 캠프를 열어 부부 서로 사랑하기, 10년 후 가족 모습 그리기 등을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는 “결혼이민 여성의 교육을 위해선 가족구성원들의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남편과 시부모가 센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 다문화센터는 온라인 요리강좌 사이트인 ‘전남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요리강좌’(http://jn.damunwha.com)를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후원금으로 설립된 이 사이트는 요리 방법을 배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 영어 등 5개 외국어로 설명하고 있어 결혼 이주 여성이 자국 어로 한국 요리를 손쉽게 배울 수 있다.

2007년 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영암군 다문화센터는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온라인 요리강좌로 발전했다.

송 센터장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결혼 초기 밥상 차리는 데 1시간30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단축됐다고 전했다”며 “다문화 부부가 이 사이트를 같이 보면 서로에게 자국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듯한 예산과 부족한 인력이란 고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문화지원센터가 ‘네트워킹’에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방서와 협조해 결혼이주 여성에게 아이들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부취재본부=박제신기자 pjs@kwangju.co.kr



광주출신 미스코리아 하현정

세계 ‘미스 투어리즘 퀸’ 등극

가운데 1위인 미스 투어리즘 퀸에 선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국제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1993년 스리랑카에서 처음 열렸으며 2004년부터 매년 중국에서 열린다.

“동양 사람들은 텁텁 안에 드는 게 힘들 일인 데다 주최사가 중국과 말레이시아였는데 그 나라 출전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막상 1위에 ‘코리아’가 불리고 난 뒤에도 전 줄 몰랐어요.”

하현정은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로 미소와 인사를 꼽았다. 다른 나라 친구들 보다 더 많이 웃고 인사하는 생각 하나로 19박 20일의 학습을 보낸 것이 비결이었다는 얘기다.

하현정은 이번 대회에서 특별상인 미스 매력상도 받았다.

광주 출생인 하현정은 동국대학교 연극과 재학 당시 교내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왔다.

그는 닳고 깊은 배우로 미스코리아 선배이자 대학교 선배인 고현정을 꼽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하현정은 “앞으로 1년간 미스코리아로서 봉사에 앞장설 것”이라며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웃었다.

하현정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 혈액원의 헌혈 흥보대사로도 활동했다.

/연합뉴스

“1000명 강강술래는 공동체 복원”

연출 ‘극단 갓돌’ 손재오 대표

“면회히 이어져 내려오는 남도의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16일 ‘2010 문화의 날’ 행사로 목포에서 치러진 ‘시민 길놀이 1000인 강강술래’를 연출한 극단 갓돌의 손재오 대표는 “목포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강강술래단’을 비롯한 무안·신안·영암·진도·해남·함평·영광 등 서남권 각 지역의 ‘강강술래 보존회’와 ‘풀꽃페’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시민 길놀이 ‘1000인 강강술래’는 이날 오후 4시 유달산 노적봉을 출발해 오거리와 선창을 거쳐 삼학도에 이르는 총 3km 구간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강강술래의 주제는 ‘우리 문화, 남도문화 열고, 맛고, 풀다’였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전승 유적인 유달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학도까지지만 강강술래의 영역을 확대한 것은 삼학도를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목표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학도까지지만 강강술래의 영역을 확대한 것은 삼학도를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목표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삼학도 전설을 담은 뮤지컬 ‘목포의 눈물’을 20여 분간 개막식 무대에 올려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동신대-日 마츠모토대 국제교류협정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평강의 집’ 개보수 봉사



한국통신돌봄닷컴, 광주여대 장학금 2000만원



알림

월계동 청서골, 062-971-7717.

▲승의고등학교 19회(졸업 30주년) 훌컬팅테이 및 승의 기축 한마음 축제=23일(토)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11-615-6629.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동문회(회장 김운기) 정기총회=23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북구 누문동) 016-611-2858.

▲한동우·이경숙씨 장남 종환(광주지법)

군 조성의·심규남씨 장녀 아라(전남대병원)양=24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아이아트홀)

할 예정이다.

▲한동우·이경숙씨 장남 종환(광주지법)

군 조성의·심규남씨 장녀 아라(전남대병원)양=24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아이아트홀)

할 예정이다.

▲한동우·이경숙씨 장남 종환(광주지법)

군 조성의·심규남씨 장녀 아라(전남대병원)양=24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아이아트홀)

할 예정이다.

▲한동우·이경숙씨 장남 종환(광주지법)

군 조성의·심규남씨 장녀 아라(전남대병원)양=24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아이아트홀)

할 예정이다.

▲한동우·이경숙씨 장남 종환(광주지법)

군 조성의·심규남씨 장녀 아라(전남대병원)양=24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아이아트홀)

할 예정이다.

▲한동우·이경숙씨 장남 종환(광주지법)

군 조성의·심규남씨 장녀 아라(전남대병원)양=24일(일) 오후 2시 2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홀 1층(아이아트홀)

할 예정이다.

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 조언제 및 상담 062-363-2240.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